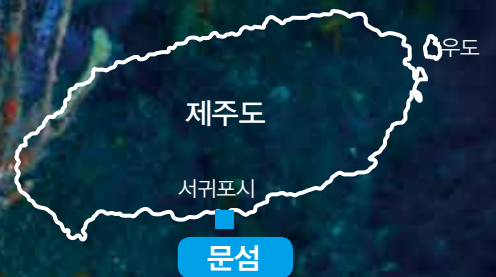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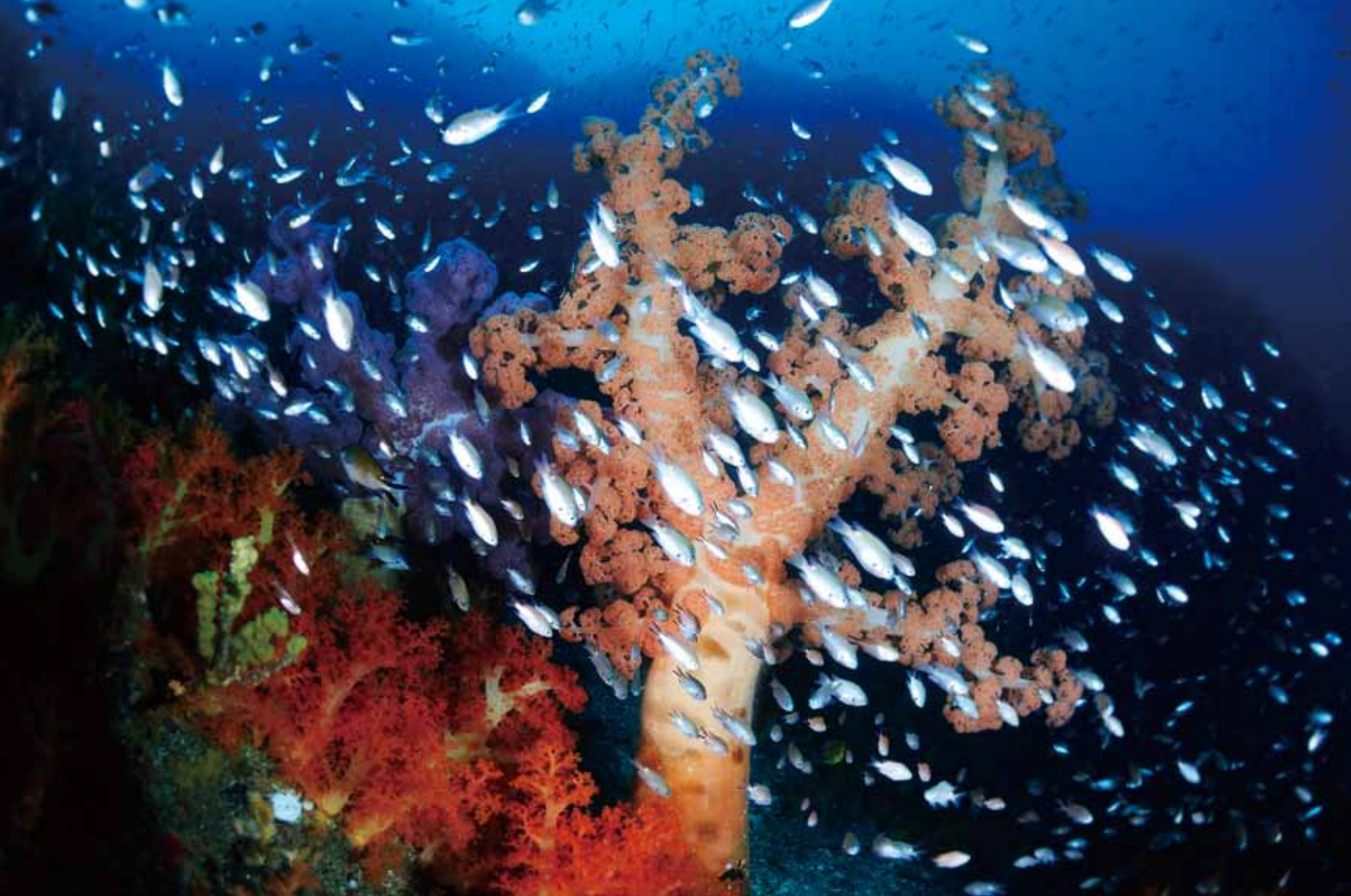
국내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 제주도 서귀포 문섬

다양한 수심에서 만날 수 있는 형형색색의 연산호 군락과 자리돔의 군무를
볼 수 있는 문섬의 새끼섬과 한개창은 세계적인 사이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글/사진 구자광, 수중사진 황윤태







제주도 문섬의 새끼섬과 한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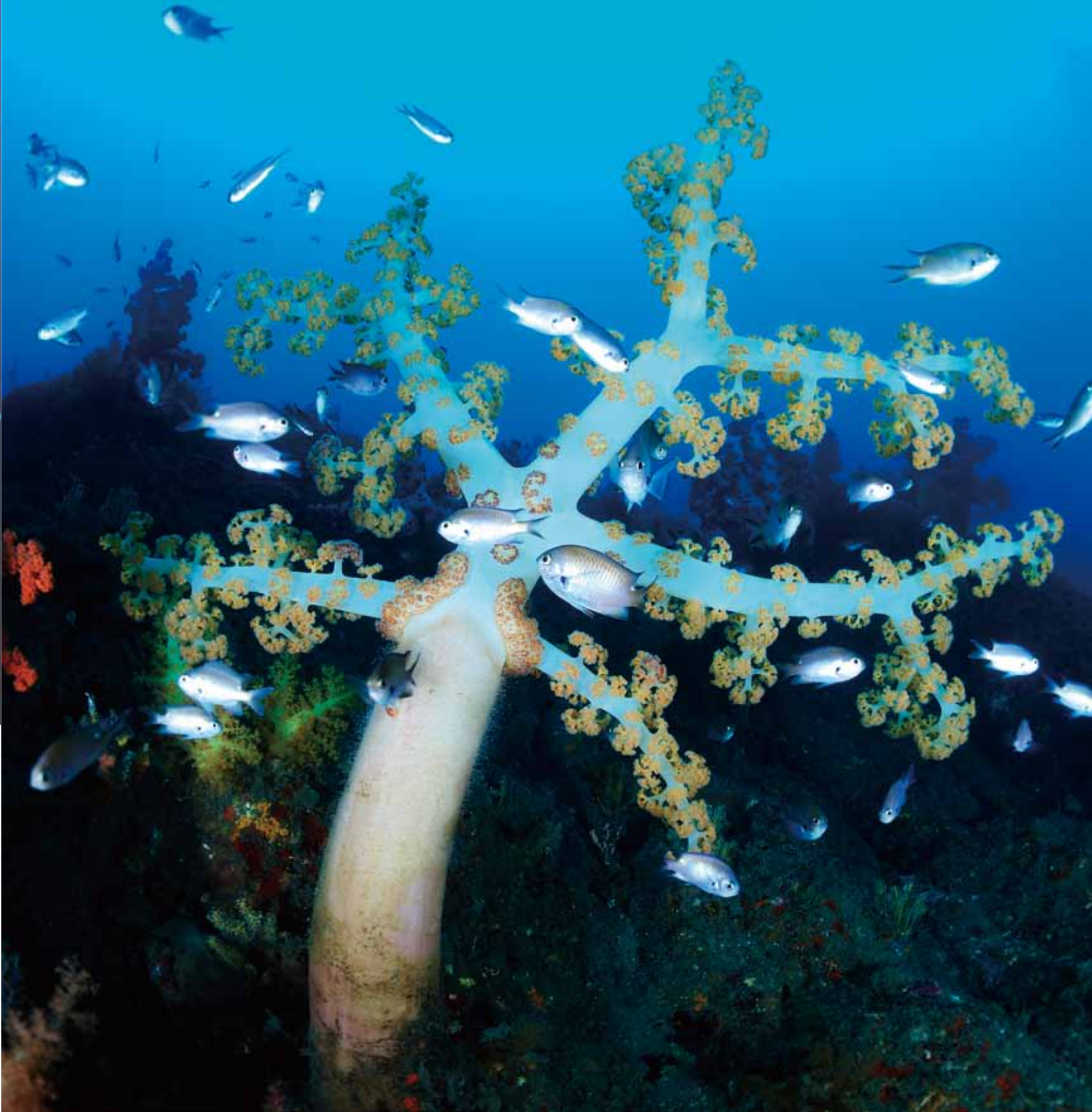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에 위치한 9만㎡ 가량의 문섬(제주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45호)은 국내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다. 멀리서 보면 새끼손가락 같은 모양의 새끼섬과 본섬으로 이뤄져 있고, 양쪽 모두 상륙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문섬은 서귀포항에서 보트를 타면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문섬 새끼섬은 10여m 수심의 교육 다이빙 포인트와 수심 40m 이상의 중급자용 포인트가 섞여 있고, 수중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많은 다이버가 찾는다. 특히 다양한 수심에서 만날 수 있는 형형색색의 연산호 군락과 자리돔의 군무를 볼 수 있는 문섬의 새끼섬과 한개창은 세계적인 사이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겨울부터 5월 초까지는 수 미터까지 자라는 무성한 모자반(해조류의 일종)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곳에 가면 주걱치 무리, 범돔 무리, 백송, 쏘베감펍, 달고기, 호박돔 등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문섬은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연산호가 절정을 이룬다. 제주도는 무더운 7~8월보다 9~10월 말경이 오히려 수온이 더 따뜻하다. 그래서 다이버들은 한여름보다 가을철에 문섬을 더 많이 찾는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보온만 잘해준다면 한겨울과 봄철에도 충분히 문섬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가 있다.



새끼섬에서는 섬비치다이빙 모습



◆ 문섬(蚊島)

문섬은 본래 민둥섬이어서 '민섬'이라 했는데, 음이 변하여 '문섬'이라 불렸다. 한자의 훈자 표기는 '독도(禿島)'이고, 음차 표기는 '문도(文島)'이나 일본인들이 섬에 모기가 많다 하여 모기 문(蚊)자를 써서 '문도(蚊島)'라 하였다고 한다.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지(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Soft Coral)란 부드러운 겉 표면과 유연한 줄기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어 말한다. 제주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을 구성하는 산호종류는 무척추 동물로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수지 맨드라미 연산호류는 육상의 맨드라미꽃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연산호 군락은 수심 10~30m의 암반에 군락을 이루고, 여타 다양한 해양생물에 서식처를 제공해주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려한 촉수를 펼쳐 먹이를 취하면서 생육하고 있다.







서귀포 굿다이버

제주도 굿다이버는 김상길, 정혜영 부부강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월드컵경기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굿다이버 리조트의 객실은 18평, 24평형이 있어 인원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펜션형 객실에는 주방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어 편리하다.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객실은 쾌적해서 다이빙여행이 아닌 제주도 육상여행을 할 때도 이곳에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다.

더군다나 굿다이버 리조트는 야외에 수영장이 있어 다이빙교육을 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방문을 해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굿다이버 리조트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주변에는 산책하기 좋은 길들이 많아 제주도만의 경관도 감상할 수 있다.

굿다이버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정말 집밥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부부의 따스함도 느낄 수 있다. 굿다이버는 공항에서 무료로 픽업을 해주며, 구성원들 모두가 손님들이 머무르는 동안 가능한 한 편안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준다. 또한 데코탱크와 나이트룩스가 가능하며 자그만 추억이라도 주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하여 굿다이버 티셔츠를 선물로 준다. 다이버들을 배려하여 마지막 다이빙은 나이트룩스로 서비스하고 있어 다이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염동로28번길 10

홈페이지 : <http://www.gooddiver.com/>

이메일 : gooddiver@naver.com

대표전화 : 064-762-7677

김상길 : 010-3721-7277

정혜영 : 010-8869-2370



서귀포 바람소리 스쿠바 & 펜션

제주 바람소리 스쿠바 & 펜션은 예전에 허천범 씨가 운영하던 마린하우스 리조트를 소아과 의사인 양승철 씨가 인수해 리모델링한 곳이다. 호텔식 룸과 깔끔한 화장실, 냉난방은 천정식으로 바뀌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항에서 픽업도 가능하며 맛있는 식사가 전일 제공된다. 스페셜로 넓은 잔디밭에서 바비큐파티를 열어 дай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준다. 보팅 위주의 편안한 체험 다이빙 및 편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도 가능하다. 나이트룩스 및

트라이믹스 등 테크니컬 다이빙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으며, 더블탱크와 데코탱크도 대여가 가능하다. 최신형 스쿠터가 8대 완비되어 있어 스쿠터 교육과 장비대여도 가능하다. 또한 수중사진을 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어시스트를 하며,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다이빙 마지막 날은 나이트룩스를 제공하여 비행기를 타는 дай버들을 배려하고 있다.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북로 80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baramsori>

공동대표

양승철 : 010-8654-3253

박찬용 : 010-9265-4505

